

보도시점 (전매체) 2. 18.(화) 14:30

중기부, 트럼프 2기 대응 등을 위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 발표

- 2024년 「글로벌화 대책」 구체화 및 트럼프 2기 등에 맞추어 수출정책 보완
- 트럼프 2기 애로센터 운영, 긴급지원 및 수출영향품목 특별관리 체계 도입
- 수출 외연을 제품 중심에서 테크서비스 수출, 한류 전략품목 등으로 확대
- 지역기반 수출전략 프로젝트 시범 도입 등 주력·신흥시장별 수출 지원
- 국내외 원팀 협업체 등 중소기업 글로벌화 네트워크·협력기반 고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8일(화)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매출·고용* 등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글로벌화 대응과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 '22년 전체 중기 대비 (평균매출) 16.9배, (영업이익) 1.4배, (평균고용) 5.2배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맞춰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환율, 트럼프 2기 관세 조치 등 최근에 등장한 대내외 변수와 '24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난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①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도 상향한다.

애로신고센터는 피해 접수·상담을 지원하고,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피해 완화 등을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중소기업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3천만원→4천만원) 등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우려)가 있어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신속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추천, 수시 신청·접수 및 심사 패스트트랙 적용 등

** 추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및 환율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

②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원 최초 공급, 실리콘 벨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의 안정된 현지 정착 및 운영을 위해 3월중 해외법인 정책자금 운영계획을 공고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국가의 해외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도 대폭 확대('24. 100 → '25. 300억원)한다.

또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한국벤처투자 해외사무소(KVIC)의 기능을 통합한 ‘해외진출 통합지원거점’을 실리콘 벨리에 시범 구축하여, 법률 등 경영지원, 스타트업 보육, 현지 투자유치 지원 등 진출 초기 입주공간부터 경영서비스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 수출영향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향후 미국의 관세조치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수출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하여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정보 분석 및 제공, 컨설팅 지원 등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④ 수출규제 등 국가별 정책 변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미국의 對중국 규제 정책 등 변화하는 정책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고, 로펌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해외규제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서를 제작한다.

2. 어떠한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를 확립해 나간다.

① 올해 수출액 100만\$ 미만 유망 초보기업을 수출액 100만\$ 기업으로 1,000개사를 육성한다.

지난해 수출대책에서 발표한 「‘27년까지 수출액 100만\$ 이상 수출 중소기업 3,000개사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25년에는 수출액 100만\$미만 수출 유망 초보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밀착 컨설팅, 선배 수출기업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② 140억원 규모의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 등 테크서비스 수출을 본격 지원한다.

그간 추진한 제품 중심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확장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올해 신설되는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는 해외 클라우드 이용 비용 등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테크서비스 특화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3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테크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으로 구성된 ‘K-혁신사절단’도 해외에 파견할 계획이다.

③ 트럼프 2기 상황에서도 화장품 수출 가속화를 위해 화장품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200억원 신설, K-뷰티 국제박람회도 개최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 K-뷰티가 글로벌 프리미엄급 위상을 지속확보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을 3월중 신설(공고)한다. 또한, 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화

장품 대형유통사 등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K-뷰티 국제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국 다변화도 본격 지원한다.

④ 중소기업 3대 新한류품목을 선별하고 특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고 한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류·신변잡화’, ‘패션잡화(주얼리 등)’, ‘문구·완구’를 3대 新한류품목으로 선정하여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별도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⑤ 신흥시장별 맞춤형 글로벌화 진출 지원 프로젝트도 새롭게 도입한다.

국가별 경제정책과 품목별 수출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아세안·중동·인도·중남미 4개 권역에 대해 전략 품목을 설정하고, 해당품목 수출을 위한 바이어 상담, 현지투자 유치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3.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등 기존에 구축한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고도화에 나간다.

① 17개국 25개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외교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25개 공관에 설치한 이후, 공관장 주재 회의 64건, 협의체 참여 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631건, 주재국 정보제공 515건의 운영 성과를 보였다. 금년도에는 재외공관이 현지 진출기업에 정보제공, 협력 기회 발굴, 애로해소 등 현지 안착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공관별 비즈니스포럼 등)하여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② 원팀 협의체에서 발굴한 해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내비게이터’도 새롭게 구축한다.

* **제공정보** : 법인설립 절차, 해외 인증획득절차, 해외 정부조달 절차, 현지 네트워크, 해외진출 성공 사례, 해외진출 FAQ 등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환율, 트럼프 2기 등 중소기업 수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미국의 관세조치 시행시 우리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규 (044-204-7500)
		담당자	서기관	성향용 (044-204-7501)
			사무관	최영훈 (044-204-7502)



1. 추진배경

- 수출 中企은 여전히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에 기여
 - * '22년 전체 중기 대비 (평균매출) 16.9배, (영업이익) 1.4배, (평균고용) 5.2배
-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책('24.5)'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정책을 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전반으로 확장
 - *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테크서비스 수출기업 정책대상 편입 등 발표
- 고환율, 트럼프 2기*, '24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변화 및 변수를 고려하여 수출 정책 보완·강화 필요
 - * 美 중국에 추가로 10% 보편적 관세 부과(2.4), 美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2.11)
 - ** '24년 中企 수출 1위 국가 변화(중국 → 미국), 한류 및 고기술혁신품목, 테크서비스 수출 확대

2.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여건

- '24년 中企 수출은 역대 2위(잠정치), 수출 기업수 1위로 선전
 - * 수출액(억달러) : ('21) 1,155 → ('22) 1,145 → ('23) 1,097 → **(24P) 1,151** (+4.9%)
 - * 기업수(개사) : ('19) 95,229 → ('22) 92,448 → ('23) 94,463 → **역대 1위 (24P) 95,905** (+1.5%)
- 기업·품목·국가 등 중소기업 수출 지형 변화 양상은 심화
 - ❶ (기업) 수출 '多진입多퇴출' 구조 심화, 수출 초보기업 퇴출율 상승
 - ❷ (품목) 일부 주력품목 수출감소, 반면 소비재, 혁신분야 수출 증가
 - ❸ (국가) 미국·신흥국 수출 증가, 주요 수출품목은 국가별로 차별화
- 고환율, 트럼프 2기 출범 등 대내외 불안정한 상황 지속
 - * 고환율에 따라 부품·자재를 수입하는 수출기업, 해외진출 기업 등이 영향·피해 우려
 - *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對中 견제 강화 등 글로벌화 환경 급변 우려

❖ 現 중소기업 **수출현안에 신속대응**하고, 향후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

3. 세부 추진과제

◆ [현안 대응] 트럼프 2기 대응 지원체계 운영

1 수출 중소기업 애로 완화 : 애로센터 운영, 긴급지원 및 영향품목 특별관리

① 전국 13개 지방청(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 설치·운영('25.2~)하고, 고관세·고환율·수출규제 등 피해 접수·상담·해소

* 미해결 애로는 글로벌화 원팀협의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연결

▪ 향후, 관세부과 시행으로 경영애로 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 지원

* 지방중기청에서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신속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중진공에 추천

** 수시 신청·접수 및 심사 패스트트랙 적용 등

▪ 수출바우처의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 (3천→4천만원) 검토

* 추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및 환율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

② 미국의 각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각국의 대응 조치 등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영향 50개 내외 품목 선별 및 특별관리 추진('25.상)

*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라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수출 품목 10개에 대해 시범 추진('25.3, 수출국다변화 정보·컨설팅 제공)

2 해외진출 지원 : 美 실리콘밸리에 해외진출 거점 구축,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해외진출기업 정책 자금 최초 지원

①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해외진출 3단계 지원체계 운영

▪ (국내준비) 수출바우처를 통해 해외진출 사전 준비사항 종합 컨설팅

▪ (진출초기) GBC 추가 개소('25. 1개), 실리콘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 거점」 시범 구축('25.하)

* GBC(중소기업 경영지원), KSC(스타트업 보육), KVIC(투자유치 지원) 기능을 통합제공

- (현지정착)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최초 지원*
(’25. 600억원), 해외진출 기업 보증 확대(’24. 100 → ’25. 300억원)

* GBC·KSC가 있는 국가에 시범적으로 추진

- ② 재외공관 원팀 협의체, 해외거점(GBC 등)을 통해 미국의 對중국 수출 규제 정책 등 국가별 정책 변화 정보 선제적 발굴·제공

◆ [구조 개선]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

① 안정된 수출 中企 확대 : 수출 100만\$ 이상 1,000개사 육성(’25년)

- ① 수출액 100만\$ 미만 유망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부족한 수출 노하우를 밀착 지원*, 수출액 100만\$ 기업으로 1,000개사 육성(’25)

* 무역 전문가 등 전문인력 활용 현장컨설팅, 국내 및 해외 멘토단 구성·운영

- ② 혁신형 내수기업 ’25년 200개사 수출기업화(수출전략수립 지원)

② 수출 외연 확장 : 테크서비스 수출, K-뷰티 및 3대 新한류 전략품목 육성

- ① 기존 제품 중심 수출 지원을 테크서비스 수출로 본격 확장

구분	테크서비스 수출 주요내용
비용지원	▶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운영 : ’25. 140억원
현지진출	▶ 「테크서비스 K-혁신사절단」 운영 확대 : ’24. 1회 → ’25. 5회
	▶ 테크서비스 관련 해외전시회 참여 확대 : ’24. 6개 → ’25. 10개 내외

- ② 글로벌 No.1 K-뷰티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단계별 총력 지원

- (수출초기) 민관협업 유망기업 발굴, 자금·정보 부족 완화 등

구분	’25년 주요 추진과제
민관협업	▶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 美(아마존) → 동남아, 일본 등 플랫폼 확대
	▶ K-뷰티 슈퍼루키 워드영 : (’24) 20개사 → (’25) 100개사
자금, 마케팅	▶ K-뷰티론 신설(’25.2, 200억원) ▶ 정책면세점에 명품 K-뷰티관 신규개소(’25)
정보제공	▶ 민관협업 뷰티 컨퍼런스(’25.3) ▶ 수출규제 상담인력 확대(4명→8명)

- (수출성장) 美 FDA 화장품 인증 및 할랄인증 지원강화, 'K-수출전사 1,000 프로젝트」를 통한 별도 마케팅 인력 연계
- (글로벌 No.1) K-뷰티 전용 R&D 트랙 신설, K-뷰티 펀드 신설, K-뷰티 국제박람회 개최 등 글로벌 프리미엄급 위상확보

③ 중소벤처기업 3대 新한류품목 선별 및 특화 프로그램 도입

- 의류·신변잡화, 패션잡화(주얼리 등), 문구·완구 3대 품목 육성
 - * 중소기업 수출 품목별 수출의 50% 이상,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선별
-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을 위한 「^{가칭}K-한류명품사절단*」 도입
 - * 영문 상품제안서 마련, MD 1:1 상담, 계약협상 지원, 물류 및 수출절차 지원
- 한류 연계한 해외 판촉전 개최('25. KCON 등 4회 내외) 및 관련 해외 전시회 참여('25, 21회) 지원

③ 주력·신흥시장별 수출 가속화 : 지역기반 수출전략 프로젝트 도입

① 신흥시장·지역별 글로벌화 프로젝트 시범 도입

- 4대(아세안, 중동, 인도, 중남미) 신흥시장 대상으로 해당지역별 전략 수출품목 선정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시범 운영('25)
- 국가별 경제정책 및 수출환경에 맞추어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구 분	국가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안)
사전준비	▶ 국가별 특성에 맞춰 K-혁신사절단을 현지진출 및 투자유치형, 현지 유통망 편입형, 정부조달 참여형, 바이어 발굴형 등으로 구분 운영
현지지원	▶ 해외거점(GBC·재외공관 원팀 협의체)을 통해 대상 국가별 특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 국가별 시장현황, 현지진출 절차, 정부 제도·유통구조 등 정보 제공

② 중소기업 수출 주력시장 (미·중·일·베)에서 수출이 감소(예정) 중이나,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반등이 가능한 14개 품목 선별 지원

* '19~'23년(5년간) 中企 수출 100대 품목 중 경쟁력은 있으나, 수출 감소품목

⇒ 대상품목에 대해 ①수출다변화(정보제공, 수출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 ②고부가가치화(R&D, '25. 185억원) 지원

◆ [지원 인프라] 네트워크 · 협력 기반 글로벌화 촉진기반 마련

1 글로벌화 정보제공 및 현장 소통채널 구축

① 재외공관 주재,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기능 대폭 강화

- 재외공관 주재, 원팀 협의체를 통해 수출 및 현지 진출 과정의 애로 해결, 정보 제공 등 협력강화

구분	주요내용
재외공관 협의체 운영실적('25.1월말)	• ① 공관장 주재 회의 개최 64건, ② 협의체 참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361건, ③ 주재국 정보제공 515건
지원사례	• 영국 진출 희망 스타트업 A사(패션 플랫폼)는 현지진출을 위한 제도 파악 및 법인 설립 등에 애로 → '런던 원팀 협의체'에 도움 요청 → 주영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비즈니스 정보제공(KOTRA), 현지 법인 설립 및 비자 신청 지원(현지 로펌), 영국 현지계좌 개설지원(하나은행 런던지점), 유럽 VC 3개사 및 투자기관 연결·영국정부 투자유치 프로그램 연결·런던 정착 유관기관 연결(KVIC) → 영국 현지법인 설립 완료('24.7.10)하고 성공적 현지 진출

- 재외공관이 현지 진출기업에 ▲정보제공, ▲협력기회 발굴, ▲애로해소 등 현지 안착을 직접 지원('25년, 7억원)
- 유망 스타트업의 주재국 특화 프로그램(IR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을 통한 현지 창업 생태계 편입 및 진출 지원

② 원팀 협의체에서 발굴한 해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내비게이터' 구축('25.2~)

③ 현장의 목소리를 적기 파악·모니터링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요 업종 (품목)별 대화채널 구축 ('25.하)

* 협단체(중기중앙회, 15개 수출지원센터 등) 내 업종(품목)별 분과 협의체 구축

2 중소기업 분야 글로벌 정책 협력 채널 확대

- ① '25년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성 홍보('25.9.1~5, 제주)
- ② 인니, 말련 등과 양국 공동 중소벤처 위원회 신설 추진